

---

# 5 분 자 유 발 언

- 유기질 비료 지원단가 상향 및 각종보험 가입 지원 건의 -

---



**고성군의회**  
(최두임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두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의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이 부족한 실정에

생산비는 증가하는 반면, 쌀값은 하락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듯,

통계청의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벼농사 순수익은 1년 사이 24% 넘게 감소했으며,

벼농사 순 수익률은 23.5%로서

2016년 이후 최저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우리 농민들께서는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농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의회와 고성군 행정이  
그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 생산비 경감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지원 단가  
상향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최근 6년 동안 10원의 인상 없이,  
1,600원으로 동결되어

인상된 자재비와 인건비를 비교한다면  
유기질 비료지원 혜택은  
상대적으로 감소된 실정으로

유기질비료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달라는  
농업현장의 숙원 해소를 위해  
지원단가 상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유기질 비료사업 지원단가 인상을  
농협에 건의해 달라는 일부 농민들이 계셨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협의 지원사업이 아닌  
국비 보전분과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정확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산불, 태풍, 주택화재 발생을 대비한  
보험 가입에 대한 재점검과 추가 군비 지원을  
건의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수 많은 주민들 중 일부는  
산림화재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가입이  
저조해 보상이 어렵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혹여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보험 중  
군민 안전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등에 대한 가입률을 즉시 점검하고

각종 군비로 지원되는 보험에 대해  
보장범위 추가 또는 보장액 상향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요구된 농업관련 당초예산 중,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 까지  
자부담 없이, 100% 보조로 추진하는  
총 8건, 22억 6천만 원의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응 편성된 군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개별 지원을 위한 보조보다는  
전체 농민, 전체 군민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습니까?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모든 군민들을 위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한 정책인지를  
항상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